

News

사상 첫 4대 금융지주 중간배당 유력... "배당제한 풀린다"

아시아경제

이달 30일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제한조치 종료로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의 중간배당이 유력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금융지주 자본관리 권고 관련 금융당국의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

시중은행, 대출관리 비상속 고금리 특판상품 봇물...왜?

데일리안

최근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카드, 유통업체와의 협업은 물론 스포츠, 게임 등의 이색 상품도 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의 행보는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예대출 관리 차원으로 읽혀진다.

토스, 신규 투자 4600억 유치...유니콘 넘어 데카톤 눈 앞

뉴시스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46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 KDB산업은행과 미국 투자사 알키온이 각 1000억원, 840억원 등으로부터 조달
토스에 대해 평가한 기업가치는 8.2조원. 2018년 기업가치 1.2조원으로 유니콘 기업이 된 토스는 3년 만에 기업가치 12조원을 의미하는 데카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자...2금융권으로 몰리는 돈

뉴스1

시중은행 자금이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낮은 예금, 적금 금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2금융권 수신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381조원으로 집계. 지난해 말 365조원에서 불과 4개월 새 16조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대비로 43.7조원 증가

빅테크, 배타적사용권 '꼼수' 부리면 최대 1억원 물린다

머니투데이

앞으로 토스나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기업)도 보험회사가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부여받은 기간에는 비슷한 상품을 사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빅테크가 보험상품 혁신을 위해 도입한 배타적사용권을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각지대'를 손보기로 한 것.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제재금 부과

라이나생명, 디지털 손해보험업에 손댄다... 업계 판도 바꿀까?

머니S

라이나생명의 모기업인 미국 시그나 그룹은 한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한다. 민간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신청할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에 이은 네 번째 디지털 보험사가 될 전망이다

한화손보, 캐롯손보 유상증자 참여...지분율 56.6%로 확대

데일리안

한화손보는 캐롯손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포함, 1232만주를 616억원에 취득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출자 일자리는 오는 25일
이번 유상증자로 한화손해보험의 지분율은 51.6%에서 56.6%로 높아진다. SK텔레콤의 지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새로 5%를 확보

장외시장도 달아올랐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증가 기준 K-OTC 시가총액은 22.3조원으로 집계. 장종엔 22.4조원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 10일을 웃돌기도 했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실제 공모주 투자 시 경쟁률이 높아 물량을 많이 배정 받지 못 하다보니 상장 전 투자로 비상장주식에 접근하는 투자자가 늘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